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 8.(화) 15:00 ~ 18:50

□ 장 소 : 교수회관 5회의실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고희관 위원, 오영상 위원, 김재원 위원
- 학교대표 : 이효원 기획처장, 전창후 학생처장, 정봉문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도정근 제61대 총학생회장, 김민석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홍지수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총장

2. 회의 내용

○ 전차 회의록 낭독

- 학교 측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안의 일부 문구를 협의를 통해 수정하기로 함.

○ 위원장 선출

- 외부위원 : 통상적으로 협의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왔으므로 고희관 협의추천위원을 위원장으로 제안함.

〈만장일치로 위원장을 선출함〉

○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관련

- 학생대표 :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1% 인하와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제안함. 학교 측 제안대로 등록금을 법정 상한 한도인

2.25%까지 인상해도 추가 수입이 41억 원에 미치지 못하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음. 국가장학금 2유형 본교 지원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64억 원이므로 등록금 인상 시 23억 원 손해임.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자료와 작년도 회의 자료 비교 시 부설학교 수입이 적자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학교대표 : 2018년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금액은 27억 원 정도로 예년 수준으로 기대했던 금액(64억 원)의 반도 못 미치는 액수가 들어와 학생들 장학금을 보전해주는 데 법인회계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음. 부설학교 수입은 회의 자료 예산부족액 대책 중 교육부대수입에 포함되어 있음. 올해는 시간강사법 시행,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 등 추가 재정소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주시 바람.
- 학생대표 : 발전기금 자료를 참고할 때 전입금을 늘릴 여력이 있어 보이고, 자료에 있는 장학금 지출액과 장학복지과에 직접 확인한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학교대표 : 발전기금 장학금은 목적지정 사업으로 기부자께서 용도를 지정해준 것을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고려할 여지가 없음. 그리고 발전기금은 기부금의 특성상 불안정성이 있어 등록금 책정 시 인하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음.
- 학생대표 :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조정하면 13억 원 이상 감액할 수 있을 것임.
- 학교대표 : 언급된 예산 중 학생 관련 사업은 예산이 낭비 없이 더 많은 학생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로 예산 과다책정 사업의 예로 든 선한인재양성사업비 10억 원은 글쓰기 지원 등 학생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고출연금 사업임.
- 학생대표 : 등록금을 인상해도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불이익이 없는 특별과정 등록금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임.

- 학교대표 : 특별과정 등록금도 인상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그리고 특별과정 등록금은 전액 학교 세입이 아니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해서 일부분만 간접비 형태로 학교에 세입하고 나머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과정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실제 학교수입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학생대표 : 현재 규정학기 초과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제도를 장애학생 및 정규학기 등록학생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함. 장애학생 중 절반 정도가 한 학기에 많은 강의를 듣기 힘들어 정규학기 중에도 9학점 이하를 수강하므로, 등록금을 그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비장애학생의 경우도 정규학기 중 9학점 이하를 듣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등록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음. 그 외 재경위원회 학생 참여, 학부/학과별 결산 양식 통일을 제안함.
- 학교대표 : 장애학생이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 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최근 장애학생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와 학생처에서 이미 검토 중임. 그러나 비장애학생으로 확대 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재경위원회 학생 참여는 서울대법 개정이 필요하나 총장 유고로 진행하지 못함. 사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 내지 인하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가 결정된다고 해도 재경위원회 심의 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학부/학과별 결산 양식 통일은 본부에서 실행하기 곤란함. 각 단과대학도 자치기구로서 법인회계, 간접비, 발전기금 등 여러 재원을 합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 양식 통일을 본부가 강제할 수 없음.
- 학생대표 : 재정적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는데, 작년에 비해 국고출연금이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음.
- 학교대표 : 국고출연금이 205억 원 증액됐으나, 사업 용도가 정해진

금액임.

- 외부위원 : 양 측의 제안과 설명을 모두 들었는데 입장변동이나 수정 제안하실 사항이 있나?
- 학교대표 : 학교 측에서 당초 등록금 2.25% 인상에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로 수정 제안함.
- 학생대표 :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어떤가?
- 학교대표 : 대학원 입학금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가며 학교 상황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이 본예산에 세입되므로 입학금의 사용처를 분리해내는 것은 곤란함. 다만, 1200억 원이 넘는 장학금 중 60% 정도가 대학원생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대학원 입학금 수입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장학금, GSI 등으로 대학원생에게 증액 지원하였음.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학교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입구조는 출연금, 등록금, 기부금 등으로 단순하고 수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 재정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학생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가 대학원 입학금 수입액 이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외부위원 : 서울대는 법인화됐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여전히 국립대로 봐야 함.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은 전 구성원이 합심해서 국회 및 정부에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여 해결해야 함.
- 학교대표 : 국립대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학부입학금을 작년에 폐지했으나 사립대는 아직 폐지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인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학생대표 : 학교 측이 수정 제안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에 합의함.

<만장일치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동결에 합의>

○ 향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 학생대표 : 학교 측 제안에 합의하는 대신 학생 측에서 추가로 제안했던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학생에 대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학생의 재경위원회 참여 등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할 것을 희망함.
- 학교대표 :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 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는 장애학생의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나, 비장애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에 대해 선처해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소관 부서에서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소관 위원회에 검토안을 올려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으로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약속할 수 없음. 그리고 예산 편성 국면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곧바로 다시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추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함.
- 외부위원 : 간담회 형식은 지속되기 어려움. 항상 예산이 확정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니 예산 편성 일정에 쫓겨 충분한 논의를 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결산이 확정된 5~6월 경 결산 자료를 가지고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연말쯤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함.
- 학교대표 : 출연금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오가다 보면 정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움.
- 학생대표 : 등록금 책정 논의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5월에 결산이 끝나면 차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외부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5월에 개최한다고 해도 어

차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어야 등록금 책정이 가능하므로 12월에 일찍 모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결산자료를 확인하고 학생 복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음.

- 외부위원 : 학생 측에서 등록금 책정 심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책이나 건의사항은 별도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운용이 가능하다고 봄.
- 학교위원 : 위원회 형식으로 하려는 학생 측 입장은 이해하나 결산 무렵부터 예산부서는 국고출연금 확보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함.
- 외부위원 : 5월 경 결산이 끝나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 심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이후인 12월 중·하순에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면 출연금 확보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임. 학생들도 합심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외부위원 : 학교 측에서 힘드시더라도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2018년도 결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학생 현황 파악 결과 및 학교 측 진행상황 공유, 재정위원회 학생 참여에 대한 진행상황 공유를 안건으로 결산이 끝난 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외부위원 : 상반기 중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고, 그 안건도 정해짐. 상반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임기를 조정했으면 함. 2019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동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3. 결정 사항

□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관련

-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동결에 만장일치로 합의

□ 향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 2018년 법인회계 결산이 확정된 후 법인회계 결산 자료,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학생 현황 파악 결과 및 학교 측 진행상황 공유, 재경위원회 학생 참여에 대한 진행상황 공유를 안건으로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폐회 : 18:50>

2019. 1. 8.